

#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ea Etiquette Education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Girls in High School\*

수원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춘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조희선

Suwon Girls' High School  
Teacher : Chun Ke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tudies, Sungkyunwan University  
Professor : Hee Sun Cho

###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tea etiquette education program on girls in high school who are under the stress of school life and study, an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m positively through the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a tea etiquette education program was designed for this study and practiced from January to March 2007. Two sample groups were selected. One is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19 students and the other is control group consisted of 38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me to the conclusions as follows.

In short the tea etiquette education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girls in high school, with respect to the politeness, the ability to control impulsiveness, the consideration of others and the stable relationship. Therefore, to practice the tea etiquette education program will be helpful for heighten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eenagers.

**주제어(Key Words)**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차생활 예절교육(tea etiquette education), 차생활 인식(awareness on tea), 차생활 실천(practice of tea)

**Corresponding Author** : Chun Keun Park, Suwon Girls' High School, 19-1 Godeung-dong, Paldal-gu, Suwon-si, Gyeonggi-do, 442-880, Korea  
Tel: +82-31-250-9194 Fax: +82-31-241-5984 E-mail: pspringk@hanmail.net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보다 지식위주의 입시 교육에만 온 힘을 기울이므로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은 소홀한 경향이 있다. 즉, 인지적 학업성취가 성공의 주요 열쇠라는 인식으로 치열한 경쟁에 매몰되어 인간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입시위주의 경쟁적 풍토에서 인지적 학업성취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경향은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인 면보다는 인지적 능력 신장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감성이 메마르고 이기주의의 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음은 더 이상 지적할 여지도 없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입시위주 교육에서 잠시나마 눈을 돌려 전반적인 영역의 성장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환경 자극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지능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정서지능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부분이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박성욱, 이영환, 한종혜, 김기현, 1999).

Salovey와 Mayer는 학업성취나 직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정서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지능은 전통적인 지능인 IQ의 한계성을 노출시켰고,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지적능력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서지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차생활은 한민족의 대표적인 고급 생활문화로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도문화 속에는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있고, 우리의 정서와 미의식이 배어 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여러 종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정영선, 2003). 차생활 예절교육이란 차를 끓여 마시거나 대접하는 단순한 행위이기보다는 차를 우려 마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일생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청소년기에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적 성숙, 추상적 사고,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에 차생활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와 정서문화가 융합된 차를 매개로 한 교육적 접근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생활 속에서 정신문화를 인식, 정착시킨다면 정서지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성애(1992)는 차생활은 정서적 안정 등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 바른

예절 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활다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희선(2004)은 다도교육은 학생들의 정서·태도·행동·예절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기 인성교육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하고 특별활동을 내실화·자율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활동은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를 갖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교육부, 1997). 이러한 관점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은 인성을 강조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도 부합되며,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특별활동 교육과정 가운데 차생활 예절교육은 계발활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인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일상에서 차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 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가 청소년기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지능

정서지능(EI)이란 말은 심리학 연구 분야로 시작되어 D. Goleman이라는 미국의 신문기자가 대중화시켜 표현한 용어이다. Goleman의 저서 『Emotional Intelligence(1995)』가 출판되면서 EQ라는 개념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Goleman은 IQ검사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학업적성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로 측정된 인지적 능력에 의존하여 인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교육의 준거로 삼아온 전통을 비판하고 정서지능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Mayer, Salovey & Caruso, 2004). 이러한 '정서지능'이란 개념은 Goleman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 지능이론 초기부

터 논란이 되어온 오래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에 '정서라는 지능개념이 있다'는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Mayer, Caruso와 Salovey(1999)는 정서지능이란 정서의 의미와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칭하며 정서지능은 정서를 지각하고 정서에 관련된 느낌을 파악하며 정서의 정보를 이해하고 또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Mayer et al., 1999).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충동을 통제함으로써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하고, 타인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심리학에서 정서지능은 상호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지능들 중 하나이며 정서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EI(emotional intelligence)는 지능을 향상시키는 정서체계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Mayer et al.(1999)에 의하면 포괄적인 용어로 정서지능은 세 가지 기본적인 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Ciarrochi, Forgas & Mayer, 2005). 정서지능의 기본능력이란 정서를 지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에 관한 문헌들에서 사람들은 개별적이지만 상호 관련된 세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인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짧은 연구의 역사에 비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대표적인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leman(1995)은 Salovey와 Mayer(1990)의 견해를 포함시켜 정서지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정숙경, 2005).

첫째, 자기 정서의 인식능력(knowing one's emotion)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단계의 정서능력의 토대가 된다. 즉,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각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주된 개념이다. 둘째, 정서의 조절(managing emotion)은 자기인식에 바탕을 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과민해지지 않고 차분하며, 불안한 감정으로 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부정적 감정 상태를 신속히 치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와 좌절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개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사회적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인이다. 셋째, 자기 동기화(motivating oneself)는 자신의 감정을 삶의 목적이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을 참아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성취를 이루어 내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정렬시키며, 주의를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어 내는데 힘을 쓰는 능력이 있다.

Goleman(1995)은 자기 동기화의 요인들을 인간 내부의 정의적 영역 즉, 정서에서 분류하였다. 그 주요 요인으로 희망과 낙관주의를 들 수 있는데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이미자, 2000). 넷째, 타인정서 인식능력(recognizing emotion in others)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인간 기술의 근본 바탕이 되며,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여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공감이나 사랑의 기술과도 같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은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려 부드럽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간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handling relationships)은 개인이 인식한 타인의 감정을 활용하여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개인의 인기도와 리더십과 관련된 능력이다. 정서지능에 대한 Salovey와 Mayer(1990, 1996)의 초기 모형과 수정 모형, 그리고 Goleman(1995)의 저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요소를 추출해 보면 첫째,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둘째,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셋째,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넷째,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다섯째,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5가지 요소로 범주화 할 수 있다(이병래, 1998).

따라서 자기 정서를 바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켜 자기감정을 삶의 목적이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여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는 정서능력은 삶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이끌 수 있다.

## 2. 차생활 예절교육

최배영과 최진영(2001)은 차생활이란 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다를 준비하고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수양하고 더불어 대인관계의 삶 속에서도 차를 매개로 하여 예절을 실천해 나가는 생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에 대한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과 차생활을 실천

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검비될 때 올바른 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차생활 교육이란 우리의 대표적 생활문화의 하나로서 차생활을 통해 예(禮)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일깨우고 올바른 차생활 예법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최배영, 최진영, 2001). 이성애(1992)는 차생활이 정서적 안정 등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 바른 예절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활다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차가 지나는 약리적인 효능은 정신활동이 원활해지고 기분이 맑아지며 피로회복이 빠르고 마음을 안정시켜 생활을 윤택하고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이중해(1993)는 차생활의 필요성을 첫째 안정된 정신생활을 위해, 둘째 건강한 생활을 위해, 셋째 예의 및 질서 생활을 위해, 넷째 애국하는 생활을 들고 있다(윤애라, 2001). 이은실(2003)은 다도교육을 통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남을 배려 할 줄도 알게 되며 행동도 진지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되었으며 인내심도 많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령층은 다르지만 윤애라(2001)는 차생활 교육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은실(2006)도 유아들에게 실시한 다도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신체적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격형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다례는 조선 초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생존문화가 아닌 의례문화로서 간단한 제사와 손님접대의 문화양식으로, 남을 접대하는 예절을 익히는 것 또한 학문으로 여겼다(정영선, 2003). 차생활 예절교육은 다례를 통해 예절을 습熟화시켜, 예절이 일상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한국의 전통예절 교육으로써 차생활의 기본 정신에서 부터 실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본생활교육을 포함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정서지능 발달과 차생활 예절교육

Hall(1904)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로 보았는데,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과도기적 단계의 반영 때문이다. 즉, 아동도 성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청소년은 자아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로 만든다는 것이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2004). 이러한 불안한 정서를 지닌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지능의 영역 중 지각관련 영역이 유년기 초기에 거의 성장을 마치는데 비하여, 정서적 자기통제, 이해, 기술적 반응 등의 정서적 삶과 관련된 두뇌영역은 성장이 더디어 사춘

기 후반인 16 ~ 18세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따라서 유년기와 10대에 반복되는 행위들은 정서지능의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Goleman, 1995).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정서보다 수학이나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학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양쪽이 서로 필요한 것이므로 학업과 정서지능을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 내에는 많은 다양한 교과들이 있지만 정서교육을 위한 시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때, 지금이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정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은 청소년기의 정서발달, 정서순화, 심성치유 등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정서적 안정감,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청소년기 정서지능 발달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차생활 예절교육에 따라 여고생의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1)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집단 내 정서 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2)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집단 간 정서 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차생활 예절교육 후 실험집단의 자기 평가는 어떠한가?

### 2. 목표 및 내용

본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차(茶)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며 작성한 프로그램에 정영선(2003)의 『한국茶文化』, 설옥자(2007)의 『가예원 다례』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구안한 프로그램이다.

본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정서문화가 융합된 교육적 접근으로 차를 매개로 하는 생활

속의 예의와 정신문화를 인식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지능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이해하고 반복적인 다례실습을 통하여 차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차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조절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차생활 예절을 익혀 예의바른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한다.

넷째,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목표 및 주요 교육내용은 <표 1>과 같다.

###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S여자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학년 학생 중 차(茶)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 19명을 실험집단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38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4.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평균차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차생활 인식과 차생활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집단만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명확한 교육효과를 알고자 교육 후의 변화에 대하여 자기(본인)평가를 통한 추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 5. 연구절차

본 연구 절차는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전검사,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차시 실시 전과 마지막 차시 수업 후에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정서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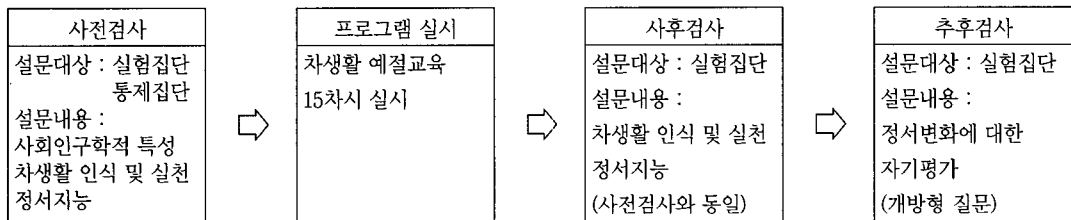
그리고 1차시 실시 전과 마지막 수업시간에 실험집단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및 분석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표 1> 차시별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

차시	목표	주요 교육내용
1	기본 생활예절 익히기 밝은 이미지 형성하기	강의 : 기본 생활 예절의 필요성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대하여 활동 및 토의 : 밝은 이미지 형성하기
2	차생활 예절이란? 정서지능 개념 이해하기	강의 : 차생활 예절에 대하여 차생활과 정서지능에 대하여 토의 : 청소년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3	올바른 우리 옷 입는 법 올바른 우리 절하기	강의 및 활동 : 우리 옷 바르게 입는 법 우리 절 바르게 하는 법
4	차의 성분 및 효능 인지하기 차의 속성 이해와 활용	강의 : 차의 성분과 맛 차의 효능 강의 및 토의 : 생활 속에서 차 활용하기
5	차도구의 명칭과 용도 인지하기	강의 : 차도구의 명칭과 용도 활동 : 5인 다례 시범 및 따라 하기
6-8	생활다례 익히기 차 마시기, 대접하기 예절	활동 : 5인 다례의 상차림 5인 생활다례 익히기
9	1인 생활다례 익히기	활동 : 1인 차잔을 활용한 생활다례
10-11	가루차 생활다례 익히기	강의 : 가루차의 특징과 이용방법 활동 : 가루차 타는 방법
12	한·중·일 차문화 이해	강의 : 우리나라 차의 종류와 특징 중국차의 종류와 특징 일본차의 종류와 특징
13	차시를 통한 선인들의 차 정신 이해	강의 : 다부의 오희공과 육덕 차시(茶詩) 읽어보고 뜻풀이 이해하기
14	차를 매개로 한 명상	강의 : 명상이란? 활동 : 행복 차 명상하기
15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활동 : 찻자리 꾸미기 다식준비(타래과) 친지에게 차 대접하기 및 정리하기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실험집단(n = 19)		통제집단(n = 3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만 16세	18	94.7	32	84.2
	만 17세	1	5.3	6	15.8
출생순위	장녀	6	31.6	19	50.0
	차녀	7	36.8	11	29.0
	막내	6	31.6	4	10.5
	무남독녀	-	-	4	10.5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와 동거	1	5.3	3	7.9
	모와 동거	1	5.3	1	2.6
	부모와 동거	17	89.4	34	89.5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친조부모	3	15.8	4	10.5
	외조부모	-	-	2	5.3
	조부모 동거 안함	16	84.2	32	84.2
주로 마시는 음료의 종류	우유	2	10.5	8	21.0
	커피	4	21.1	5	13.2
	녹차	4	21.1	7	18.4
	주스, 콜라	7	36.8	6	15.8
	기타	2	10.5	12	31.6
계		19	100.0	38	100.0



〈그림 1〉 프로그램 실시 및 분석 절차

1) 사전검사

차생활 예절 교육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1월 8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정서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에게는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설문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2007년 1월 9일 부터 2월 16일 까지 1회 2시간(100분; 고등학교 수업 1시간당 50분)으로 총 15차시의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차생활 예절교육은 학교 내 생활관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차를 생활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매시간 조별로 차를 우려 마신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차생활 예절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본생활예절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차를 생활화하여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3)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인 2월 16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정서지능 검사를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에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4) 추후검사

프로그램을 마친 후 1개월 후인 3월 16일에 친지들을 초대하는 차자리를 마련하여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6. 평가도구

1) 차생활 인식 및 차생활 실천 평가

차생활 인식 및 차생활 실천 문항은 강미라(2002), 이순실(2003), 김종희(2004), 장정화(2006)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차생활 예절교육에 적절한 내용으로 선정하여

〈표 3〉 차생활 인식 및 실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문항 구성

척도	정의	문항수	신뢰도
차생활 인식	차생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9	.75
차생활 실천	차를 직접 다루는 행다래를 포함한 생활 속에서 차를 매개로 하는 모든 차생활 경험을 의미	15	.70
전체		24	

차문화 인식 9문항과 차생활 실천 1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 척도의 차생활 인식과 실천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2) 정서지능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 정서지능 척도는 장대익(2002)이 수정한 문항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와 EQ개발』의 EQ test지를 바탕으로 여고생에게 맞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5가지 하위요인은 감정이해, 감정조절, 동기부여, 타인감정이해, 인간관계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정서지능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정서지능 검사의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3) 실험집단의 자기 평가

실험집단의 자기 평가에 대한 설문은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변화에 대하여 알고자 1개월 후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7.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문항과 정서지능검사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검정과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집단 내 정서지능의 차이검정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정서지능의 차이검정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차생활 예절교육에 관한 실험집단의 자기평가 설문은 각

〈표 4〉 정서지능 검사의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감정이해	자신의 감정표현과 느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10	.71
감정조절	자기 지각에 기초하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10	.81
동기부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출하는 능력이자 행동화하는 능력	10	.69
타인감정이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10	.79
인간관계	사회적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신뢰감, 사교성 및 이타성을 포함하는 능력	10	.78
전체		50	

항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기 변화에 대한 개방형 추후검사 결과를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대입하여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차생활 인식 및 실천 평가

1)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차생활 인식 및 실천의 차이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차생활 인식 및 실천의 차이

	사전(n = 19)		사후(n = 19)		t
	M	SD	M	SD	
차생활 인식	2.52	0.55	4.15	0.40	-12.29***
차생활 실천	3.15	0.67	4.02	0.50	-6.55***
전체	2.83	0.55	4.08	0.42	-10.74***

\*\*\*p < .001.

실험집단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차생활 인식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차생활 실천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결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이는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 정서지능 평가

1) 차생활 예절교육에 따른 정서지능 차이

(1)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집단 내의 정서지능의 차이  
 차생활 예절 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집단 내의 정서지능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집단 내 정서지능의 차이

	사전(n = 19)		사후(n = 19)		paired t
	M	SD	M	SD	
감정이해	3.31	0.58	3.70	0.30	-2.74*
감정조절	2.82	0.49	3.47	0.52	-3.75***
동기부여	3.25	0.52	3.49	0.43	-1.33
타인감정이해	3.29	0.33	3.60	0.35	-3.73**
인간관계	3.21	0.43	3.67	0.49	-3.76***
정서지능 전체	3.18	0.33	3.58	0.28	-4.13**

\* $p < .05$ , \*\* $p < .01$ , \*\*\* $p < .001$ .

먼저 감정이해는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p < .05$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감정조절은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p < .001$ 로 통계적으로 매우 높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평균이 3.49로 실시 전의 평균 3.25보다는 높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인 감정이해는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p < .01$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간관계는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p < .001$ 로 통계적으로 매우 높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정서지능 전체를 보면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한 후가 실시 전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 동기부여를 제외하고, 감정이해, 감정조절, 타인감정이해, 인간관계 등 전반적으로 정서지능에 대한 영역별 변화가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 집단 간 정서지능의 차이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전 여고생의 정서지능 영역을 살펴보면 각 하위영역별 항목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실험집단의 각 영역별 정서지능과 통제집단의 각 영

역별 정서지능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으므로 정서지능에 대한 집단 간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다.

<표 7>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 집단 간 정서지능의 차이

	사전(n = 19)		사후(n = 38)		t
	M	SD	M	SD	
감정이해	3.31	0.58	3.19	0.24	0.85
감정조절	2.82	0.49	2.67	0.26	1.10
동기부여	3.25	0.52	3.09	0.36	1.01
타인감정이해	3.29	0.34	3.34	0.28	-0.42
인간관계	3.21	0.43	3.07	0.21	1.24
정서지능 전체	3.18	0.33	3.09	0.17	1.08

(3)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후 집단 간 정서지능의 차이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실험집단과 예절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간 정서지능 영역별 차이를 통하여 차생활 예절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후 집단 간 정서지능의 차이

	사전(n = 19)		사후(n = 38)		t
	M	SD	M	SD	
감정이해	3.70	0.30	3.39	0.38	2.65*
감정조절	3.47	0.52	2.87	0.40	4.23***
동기부여	3.49	0.43	3.20	0.34	2.03
타인감정이해	3.60	0.35	3.34	0.24	2.41*
인간관계	3.67	0.40	3.22	0.30	3.60**
정서지능 전체	3.58	0.28	3.21	0.25	4.01***

\* $p < .05$ , \*\* $p < .01$ , \*\*\* $p < .001$ .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감정이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t = 2.65, p < .05$ ), 감정조절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t = 4.23, p < .001$ ). 그러나 동기부여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49로 통제집단의 평균 3.20에 비하여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인감정이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p < .05$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인간관계는  $p < .01$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동기부여 영역을 제외한 정서지능 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 각 영역 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감정조절과 인간관계 영역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집



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다.

2) 실험집단의 차생활 예절교육 후에 대한 자기평가

(1) 학생 자신들이 인지한 차생활 예절교육의 장점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순서대로 다섯 가지 정도 들어 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1순위 위에 정서안정과 대인관계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차생활 인식 및 실천이 31.6%, 한절 및 한복입기가 10.5%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 3순위에서도 정서안정 및 대인관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이들 분야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정은(1988)의 조사에서도 '정서적 건강을 도모한다'가 3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 외의 장점으로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고급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차를 매개로 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차

<표 9> 학생들이 인지한 차생활 예절교육의 장점

순위	장점					n(%)
	기본생활예절	한절 및 한복입기	차 인식 및 실천	정서안정 및 대인관계	기타	
1순위		한절 및 한복 입는법(1)	향긋한 차 맛(2) 차에 대한 관심과 흥미(1) 차 우리는 방법(1) 차생활 예절(2)	여유로운 마음(1) 마음조절가능(2) 차분한 마음유지(6) 참을성 길러짐(2)		
		2(10.5%)	6(31.6%)	11(57.9%)		
2순위	예절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음(2)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셔봄 (2) 차 마시는 법을 알 수 있음(2) 차의 일반특성을 배울 수 있음(2) 차를 우릴 수 있음(1)	정서에 도움(1) 인내심이 증가(1)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김(2) 차를 마시며 생각 하는 여유 찾음(2) 감정조절가능(2)	고급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음(1)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 가능(1)	
	2(10.5%)		7(36.8%)	8(42.1%)	2(10.5%)	
3순위	기본생활예절을 배움(2)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음(1)	한절 한복 입는법을 배움(2)	차에 관한 지식을 쌓음(3)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음(1)	마음이 차분해짐(3) 타인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함(3) 마음이 편안해짐 (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1) 친구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김(1)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게 됨(1)	
	3(15.8%)	2(10.5%)	4(21.1%)	7(36.8%)	3(15.8%)	
4순위	기본생활예절을 배움(1) 잘못 알고 있던 기본생활예절을 바르게 알게 됨(1)	한절하는 방법을 배움(1)	건강에 도움(1) 차를 마심(2) 차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됨(1) 다양한 차의 향과 맛을 느낌(4) 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됨(2)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김(1)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됨(2) 여유가 생김(2)	친구들과 정을 쌓게 됨(1)	
	2(10.5%)	1(5.3%)	10(52.6%)	5(26.3%)	1(5.3%)	
5순위	매너인으로 거듭남(1) 매너 있는 생활을 하게 됨(1)	한절과 한복입는 방법을 알게 됨(3)	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움(3) 차의 느낌이 달라짐(1) 차 우리가 가능(1)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움(1) 차도구 올바르게 사용 가능(1)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줌(1)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됨(2) 마음이 편안해짐(2)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2)	
	2(10.5%)	3(15.8%)	7(36.8%)	5(26.3%)	2(10.5%)	

\* ( )은 설문에 답한 빈도수

〈표 10〉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자신이 느낀 변화

개방형 응답	
감정이해	차를 마실 때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었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감정표현이 직설적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게 되었다.
감정조절	화난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 차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화가 나면 나 자신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안정되어 화를 전보다 덜 낸다.
동기부여	자신을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급한 성격을 좀 차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었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타인감정이해	나보다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노골적인 감정표현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표현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기본예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차생활 예절을 배우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바쁜 고교생활로 인한 빨리빨리 습관이 차생활 교육을 받으면서 차를 우리며 기다림의 여유를 배울 수 있었다. 녹차를 계기로 평상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우리 가족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TV를 보면서 나누었던 대화보다 차를 마시며 나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후 자신이 느낀 변화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학생 자신이 느낀 변화된 점을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한 개방형 응답의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며, 하루의 바쁜 일과 속에서 기다림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차를 통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점, 화난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변화 등을 언급한 결과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서지능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풍토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청소년들에게 차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차생활 예절교육을 지도함으로써 자기 감정조절, 감정이해, 동기부여, 타인감정이해, 인간관계 등을 개선시켜 정서지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에 따라 인생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후 차생활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고생들의 차생활 인

식 및 실천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차생활 예절교육 실시 전과 후의 정서지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 하위 영역 중 감정이해, 감정조절, 타인감정이해, 인간관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정서지능을 분석한 결과 역시 감정이해, 감정조절, 타인감정이해, 인간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차생활 예절교육이 청소년기 여고생의 정서지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자기평가를 통하여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평가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의 장점으로 1순위를 차지한 것이 정서안정 및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하였다. 자신이 느낀 변화에서도 차생활 예절교육을 받은 후 학교나 가정에서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원만한 친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청량음료 대신 차를 마시는 경향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에서의 차생활 예절교육을 통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차를 생활화하려는 자세를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의 차생활 교육이 평상시 학교나 가정에서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차생활 예절교육이 청소년기 여고생들에게 자신의 감정표현과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생활 예절교육프로그램

을 정규교과과정에서 운영하거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고급스런 정서를 체험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차와 명상을 주제로 교육한 집단이 안정성과 사려성이 높아졌다는 조순아(1984)와, 다도교육이 인격형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이성애(1997)의 연구와 일치하며, 다도교육을 통하여 정서·태도·행동·예절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이순실(2003)의 연구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연령층은 다르지만 다도교육이 유아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과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김종희(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생활 예절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를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으나,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차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2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관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습 담당교사들이 다도와 예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외부강사보다는 학교실정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현직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고교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3개월에 걸쳐 30시간의 단기간 교육활동이었는데 학교에서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장기간 반복학습을 통하여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정서지능 변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차생활 예절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지나친 격식 같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사 자신이 생각을 전환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차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차생활 의식, 예절과 다례에 따른 기술적 동작들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서지능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개인의 일생을 거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많은 부분이 훈련과 노력을 통해 길러 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연계된 차생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미라(2002). 유치원생의 다례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 서울지역 유치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1)**. 서울: 대한교과서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종희(2004). 다도교육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자, 최배영(2004). 청소년기의 다례교육 연구. **한국문명학회지**, 5(3), 177-202.

박성옥, 이영환, 한중혜, 김기현(1999). 정서지능(EQ)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6), 1-10.

설옥자(2007). **가예원 다례**. 서울: 미디어숲.

윤애라(2001). 전통 차생활교육 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미자(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환경과의 관계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병래(1998).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성애(1992). 우리나라 차문화의 문헌적 고찰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성애(1997). 다도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3(2), 53-71.

이순실(2003).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실(2006). 몬테소리교육을 통해 본 유아 다도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대익(2002). 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전자공업 실기기능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정화(2005). 다도교육을 통해 아동의 예절수행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숙경(2005).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선(2003). 한국 茶文化. 서울: 너럭바위.
- 정영숙(1999). 부산여대생의 다도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5(2), 41-49.
- 정영숙(2003). 다도교육이 유아의 EQ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차학회지*, 9(1), 1-30.
- 정영숙, 노현옥(2004). 유아의 EQ 함양을 위한 다도교육 프로그램. *한국차학회지*, 10(2), 55-71.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2004).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순아(1984). 전통차와 명상이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희선, 이순실(2004).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1), 1-17.
- 최배영, 최진영(2001). 차생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내용 분석.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4(1), 53-63.
- 최정은(1988). 다도교육에 관한 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ockert, S., & Braun, G.(1997). *EQ 테스트 북*. 홍명희 (역). 서울: 해냄. (1996년 원저발간).
- Ciarrochi, J., Forgas, J. P., & Mayer, J. D.(2005). 정서지능. 박재현, 장승민, 권성우(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2001년 원저발간).
- Fitness, J.(2001). Betrayal, rejection, revenge, and forgiveness:An interpersonal script approach. In M. Leary(Ed),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13, 119-133.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2004). Emotional intelligence: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3), 197-215.
- Planalp, S., & Fitness, J.(1999). Thinking/feeling about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731-750.

접 수 일 : 2008년 5월 2일

1차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5월 30일